

광양상의 독자 설립 가시화

대법 “새 상의 설립 허용” 판결…순천과 분리될 듯

“광양지역 위상 크게 높아질 것” 기대 커

광양상공회의소의 독자적인 설립 및 운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순천·광양상의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광양상의 설립 인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전남도가 광양상의 설립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냄으로써 광양상의 분리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광양상의 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리적

조건이나 회원 분포, 운영 특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2개 이상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통합 상의가 설립됐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사라졌다면 원칙대로 하나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새 상의가 설립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통합 상의가 먼저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 관할구역을 바꾸지 않는 한, 복수의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를 관할하는 상의 신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광양상의가 설립되면 원산지 증명 및 취업, 자격시험 등을 독자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관할구역과 관련된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재직의 원 3분의 2 참석과 참석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은 다음 인가권인 전남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도지사가 의원총회 결의도 없이 직권으로 인가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박상옥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광양에 독자적인 상공회의소가 설립되면 외국 기업인 등의 방문시 지역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겼다.

그는 “광양상의가 설립되면 원산지 증명 및 취업, 자격시험 등을 독자

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광양 지역 상공인의 위상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에 순천·광양상의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면서 “마지막까지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순천·광양상의는 2008년 12월 15일 전남도가 광양상의 설립을 인가하자 “하나의 관할구역에 2개의 상의를 중복으로 설립하도록 인가한 것은 상의제도와 상의법에 어긋난다”며 전남도를 상대로 설립인가 효력정지 가져분신청과 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하태민기자



여수특산 돌산갓이 현재 최고가인 kg당 1000원선에 거래되면서 농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여수 돌산갓은 통상 500원대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이상기온으로 채소값이 뛰며 동반상승했다.

(여수시 제공)

“수협 경매, 개인 신용만으로 외상 가능”

■ 수협중앙회 개선안 내일부터 시행

신용평가는 거래 실적·기간, 회전율 등 1회 합산

최근 해양경찰이 수협 종도매인의 한도를 초과한 외상 거래를 불법대출로 간주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협중앙회가 개선책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여수수협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종도매인이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만으로 거래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종도매인의 담보한도에 개인별 신용평가점수를 합산해 거래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가 마련한 개선책은 종전에 기본(담보) 한도에 추가 한도가 ▲여수·구례방면의 국도 17호선 ▲보성방면의 국도 22호선 ▲경전선 철도 등이 연결되고, 인근에 광양~전주·목포~광양간 고속도가 오는 2011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필요할 경우 보증인을 세워 1인당 2000만원까지 초과한도를 부여했으나 보증인 없이 종도매인 기본한도에 개인 신용한도만으로 추가한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수수협의 경우 최근 일부 종도매인이 추가한도를 보증인 없이 거래하다 해경에 적발된 점을 감안해 이번 수협중앙회의 개선안은 외상 거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에서 반기 있다.

종도매인 개인 신용평가는 매년 1회 ▲거래실적 ▲회전율 ▲거래기간 ▲기타 영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합산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신용이 좋은 중도매인의 경우 일선 수협이 사회의 의결안 받으면 한도제한을 받지 않게 돼 종도매인 개인별 신용관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수협 관계자는 “수협내규인 공판사업영역에 대한 이번 개선안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외상거래를 제도화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거래한도 관리강화를 통한 매수인 자신의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해경은 수협의 개선안과 무관하게 담보나 연대보증인 없이 한도를 초과해 외상 거래를 한 종도매인 4명을 배임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현재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지구 지정

임대 및 중소형 주택건설 추진

오는 2013년 순천시 오천·풍덕·남정·덕월동 일대가 3690세대의 친환경 주거지구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순천시 오천·풍덕·남정·덕월동 일대 59만4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오는 10월에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거쳐 2011년 2월께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천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10~30년 장기임대주택 1824가구 등 총 3690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며, 전

체 주택의 70%인 2382가구가 전용 면적 85㎡(25.7평) 이하의 중소형 주택으로 지어진다.

첫 입주는 오는 2013년 6월 예정이다.

순천 오천지구는 순천시청에서 남쪽방향으로 1.4km 떨어진 지역으로, 2013년 개최될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장과 인접해 있다.

교통여건은 ▲여수·구례방면의 국도 17호선 ▲보성방면의 국도 22호선 ▲경전선 철도 등이 연결되고, 인근에 광양~전주·목포~광양간 고속도가 오는 2011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는 “장미원은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줄이고, 광양시는 광양군과 협력해 공동으로 광양군과 광양시를 더 넓힐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오는 10월에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거쳐 2011년 2월께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천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10~30년 장기임대주택 1824가구 등 총 3690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며, 전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박람회 협력’ 여수~상하이 전세기 취항

여수시민 참관단 어제 출발

여수시와 중국이 2012 여수국제박람회와 2010 상하이국제박람회에 대한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 최근 시와 여수시, 중국 동방항공 간 협약에 따른 조치로, 이번을 포함 오는 10월까지 총 4차례 운행된다.

오늘 여수시장 등 일행과 여수시민 150명으로 구성된 중국상하이박람회 참관단 등을 대문 전세기로 29일 오후 여수공항에서 상하이를 향해 출발했다.

이번 전세기 취항은 여수와 상하이

에서 각각 열리는 박람회에 대한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 최근 시와 여수시, 중국 동방항공 간 협약에 따른 조치로, 이번을 포함 오는 10월까지 총 4차례 운행된다.

오 시장 일행의 이번 상하이 방문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열리는 상하이박람회에서 여수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상하이박람회 전야제와 개막식, 한국관 개관식 등에 참석하고 박람회 관계자 등을 만날 계획이다.

여수시민 참관단 어제 출발

여수시민 참관단 어제 출발

여수시와 중국이 2012 여수국제박람회와 2010 상하이국제박람회에 대한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 최근 시와 여수시, 중국 동방항공 간 협약에 따른 조치로, 이번을 포함 오는 10월까지 총 4차례 운행된다.

오 시장 일행의 이번 상하이 방문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열리는 상하이박람회에서 여수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상하이박람회 전야제와 개막식, 한국관 개관식 등에 참석하고 박람회 관계자 등을 만날 계획이다.

여수시민 참관단 어제 출발

여수시민 참관단 어제 출발

여수시와 중국이 2012 여수국제박람회와 2010 상하이국제박람회에 대한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 최근 시와 여수시, 중국 동방항공 간 협약에 따른 조치로, 이번을 포함 오는 10월까지 총 4차례 운행된다.

오 시장 일행의 이번 상하이 방문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열리는 상하이박람회에서 여수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상하이박람회 전야제와 개막식, 한국관 개관식 등에 참석하고 박람회 관계자 등을 만날 계획이다.

여수시민 참관단 어제 출발

여수시민 참관단 어제 출발

여수시와 중국이 2012 여수국제박람회와 2010 상하이국제박람회에 대한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 최근 시와 여수시, 중국 동방항공 간 협약에 따른 조치로, 이번을 포함 오는 10월까지 총 4차례 운행된다.

오 시장 일행의 이번 상하이 방문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열리는 상하이박람회에서 여수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상하이박람회 전야제와 개막식, 한국관 개관식 등에 참석하고 박람회 관계자 등을 만날 계획이다.

여수시민 참관단 어제 출발

여수시민 참관단 어제 출발

여수시와 중국이 2012 여수국제박람회와 2010 상하이국제박람회에 대한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 최근 시와 여수시, 중국 동방항공 간 협약에 따른 조치로, 이번을 포함 오는 10월까지 총 4차례 운행된다.

오 시장 일행의 이번 상하이 방문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열리는 상하이박람회에서 여수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상하이박람회 전야제와 개막식, 한국관 개관식 등에 참석하고 박람회 관계자 등을 만날 계획이다.

여수시민 참관단 어제 출발

여수시민 참관단 어제 출발

여수시와 중국이 2012 여수국제박람회와 2010 상하이국제박람회에 대한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 최근 시와 여수시, 중국 동방항공 간 협약에 따른 조치로, 이번을 포함 오는 10월까지 총 4차례 운행된다.

오 시장 일행의 이번 상하이 방문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열리는 상하이박람회에서 여수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상하이박람회 전야제와 개막식, 한국관 개관식 등에 참석하고 박람회 관계자 등을 만날 계획이다.

여수시민 참관단 어제 출발

여수시민 참관단 어제 출발

여수시와 중국이 2012 여수국제박람회와 2010 상하이국제박람회에 대한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 최근 시와 여수시, 중국 동방항공 간 협약에 따른 조치로, 이번을 포함 오는 10월까지 총 4차례 운행된다.

오 시장 일행의 이번 상하이 방문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열리는 상하이박람회에서 여수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상하이박람회 전야제와 개막식, 한국관 개관식 등에 참석하고 박람회 관계자 등을 만날 계획이다.

여수시민 참관단 어제 출발

여수시민 참관단 어제 출발

여수시와 중국이 2012 여수국제박람회와 2010 상하이국제박람회에 대한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 최근 시와 여수시, 중국 동방항공 간 협약에 따른 조치로, 이번을 포함 오는 10월까지 총 4차례 운행된다.

오 시장 일행의 이번 상하이 방문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열리는 상하이박람회에서 여수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상하이박람회 전야제와 개막식, 한국관 개관식 등에 참석하고 박람회 관계자 등을 만날 계획이다.

여수시민 참관단 어제 출발

여수시민 참관단 어제 출발

여수시와 중국이 2012 여수국제박람회와 2010 상하이국제박람회에 대한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 최근 시와 여수시, 중국 동방항공 간 협약에 따른 조치로, 이번을 포함 오는 10월까지 총 4차례 운행된다.

오 시장 일행의 이번 상하이 방문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열리는 상하이박람회에서 여수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상하이박람회 전야제와 개막식, 한국관 개관식 등에 참석하고 박람회 관계자 등을 만날 계획이다.

여수시민 참관단 어제 출발

여수시민 참관단 어제 출발

여수시와 중국이 2012 여수국제박람회와 2010 상하이국제박람회에 대한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 최근 시와 여수시, 중국 동방항공 간 협약에 따른 조치로, 이번을 포함 오는 10월까지 총 4차례 운행된다.

오 시장 일행의 이번 상하이 방문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열리는 상하이박람회에서 여수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상하이박람회 전야제와 개막식, 한국관 개관식 등에 참석하고 박람회 관계자 등을 만날 계획이다.